

2009년 東崇學術財團이선정한 언어학자
鄭寅承(1897-1986)

1. 정인승 연구의 현 주소

1996년 10월 당시의 문화체육부에서는 ‘10월의 문화 인물’로 건재(建齋) 정인승(鄭寅承)을 선정하였다. 이 행사는 평생 국어 연구와 국어 운동에 삶을 불사른 인사 중에서 한 분을 골라 추대하는 행사로, 국어학자이자 사전 편찬자, 국어 교육자로서의 건재 정인승의 업적을 기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건재의 학문 세계나 국어 운동은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1996, 국립국어원)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된 바 있다. 또한 조오현(1995, 1996, 1997, 1998)에서는 건재의 생애와 학문, 사상, 편지글, 강의 노트 등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생애와 사상, 인간적인 면모 등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 특히 『건재 정인승 전집』(1997, 박이정)에서는 건재의 학문, 교육, 사상을 담은 저술을 정리함으로써 그의 업적이 국어학계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전집에 수록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건재 정인승 전집의 수록 내용

권수	수록 자료
1. 말본편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고등 말본(1956, 신구문화사) . 표준 고등 말본 교사용 지도서(1956, 신구문화사) . 인문계 고등학교 표준 문법(1968, 계몽사, 수록본은 74년 판) . 한글 소리본(정인승, 유열 공저, 판권 알 수 없음)
2. 말본편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중등 말본(1949, 아문각) . 표준 중등 말본 교수 참고서 . 중등 말본(1956, 신구문화사) . 표준 중등 말본 교사용 지도서(1956, 신구문화사) . 표준 중등 말본(1965, 신구문화사) . 표준 중학 말본(1971, 대동당)
3. 논문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외 18편 . 그밖의 글 23편
4. 물음과 대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문답(1950, 현대문화사) . 한글 강화(1960, 신구문화사)
5. 옛글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옛글(이병기, 정인승 엮음, 1955, 신구문화사) . 표준 옛글(이병기, 정인승 엮음, 1956, 신구문화사) . 표준 옛글 교사용 지도서(1956, 신구문화사) . 표준 문예 독본(1955, 향학사)
6. 국어운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어학회 사건 . 국어운동 50년 . 한글 독본(1948, 정음사) . 예심 종결 결정문
7. 강의 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문자사 I(필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문자사 II(필사본) . 용비어천가 강의(필사본, 1955) . 용비어천가 강의(등사본, 국어문학연구회) . 표준 중학 한자(1968, 향학사)
--	---

전집의 자료는 원문을 컴퓨터로 재조판한 것으로, 판권이 불분명한 한계는 있으나 건재의 삶과 사상을 집대성한 자료집이어서 건재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처럼 기존의 건재 연구는 제자나 후학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어학자, 국어 운동가로서의 건재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국어 교육자로서의 건재에 대한 평가는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이 점에서 이 글은 기존의 건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건재의 생애와 국어 연구’, ‘사전 편찬’, ‘한글 문답과 한글 강화’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의 건재의 면모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건재의 생애와 국어 연구

건재 정인승의 생애에 대한 정리는 한글학회(1986), 국립국어원(1996), 한말연구학회(1997)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건재는 1897년 5월 19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렸을 때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1917년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연정 학원과 중동 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연희 전문학교 문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재의 제자였던 김승곤(1996)에서는 건재의 수학 과정에 서 건재보다 3년 먼저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했던 김윤경, 영문법 교수인 백남석, 정인보의 수사학 강의, 피시어 교수의 셰익스피어 강의, 언더우드(원한경) 교수의 아동 심리학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김윤경은 주시경의 창의적인 국어 문법 학설을 배운 분으로 건재의 국어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국자로서, 그리고 국어학자로서 건재 정인승의 업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건재와 조선어학회, 특히 ‘큰사전’ 편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건재가 큰사전에 관여하게 된 과정은 1936년 외솔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조선어학회 기관지였던 『한글』의 ‘물음과 대답’란의 책임을 맡고 있던 김윤경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승곤 1996에서는 당시 이 란을 맡고 있던 분이 김병제라고 하였는데, 『한글』 제2권 제1호~제3호의 기사에서는 고상고보 정인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분이 김윤경으로 나타난다.) 이때부터 건재는 표준어 사정, 큰사전 편찬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외솔이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연금되다시피 하고, 환산 이윤재가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붙잡혀 가게 되자 이극로와 함께 사전 편찬 일을 전담하게 된다.

건재는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의 중추적인 일을 맡아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수정 및 기초 위원(1936.11.28.~1940.6.15.),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의 편집 및 발행(1937.10.~1942.4.), 『한글』의 ‘물음과 대답’란 집필(통권 49호~108호까지, 광복 이후 1959.10. ~1963.9. 제125 ~ 제132호까지), 『우리말큰사전』편찬(1936.4.~ 1942.10.)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42년 10월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는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

로 옥고를 치렀다(이에 대해서는 김승곤 1996 참고).

이처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서 건재 정인승의 보인 삶은 애국자이자 선비로서의 면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오현(1997)에서는 ‘건재 정인승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2) 건재 정인승 선생의 생애와 사상(조오현, 1997)

1. 출생과 가정 환경

2. 장수의 시절

- (1) 언해본을 통해 혼자 힘으로 한문학을 배움: 『일어대해』, 와세다대학 강의록 독학
- (2) 나라와 겨레에 대한 사랑이 움트다: 의병 운동을 목격하면서 나라사랑 정신이 싹틈
- (3) 선구자로서의 삶과 신학문에 대한 싹: 용담 공립보통학교 졸업 시까지

3. 학창 시절

- (1) 왜놈 학교가 싫어서 인가도 안 난 연희전문 입학
- (2) 정인보 선생으로부터 한글의 우수성 깨우치다
- (3) 민립학교라는 말에 고상고보 교원이 되다

4. 고상고보(현 고창고등학교) 교사 시절

- (1) 국어사랑 정신 움트고 나라 사랑 실천하다
- (2) 비공식적으로 조선어를 1주일에 5시간씩 가르치다
- (3) 나라의 말과 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유학의 꿈 버리다
- (4) 퇴학당한 애국 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 감시 대상자가 되다

5. 조선어학회와 건재 사상

- (1) 외출 선생의 권유로 큰사전 편찬의 일을 맡다
- (2)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실형 받고 복역 중 해방으로 출옥하다
- (3) 해방이 되자 국어 강습과 국어 교재 편찬에 힘쓰다

(이하 ‘대학 강단 시절’, ‘학문의 뿌리 건국대학교에 내리다’는 생략)

광복 이후 건재는 한글 및 국어의 강습과 강의에 정성을 쏟으며 교재 편찬을 통한 국어의 회복과 보급에 힘썼다. 또한 한글학회 이사로 선임되어 일을 보면서 사전 편찬의 일을 지속하며, 문교부 교수 요목 제정이나 국어 심의회 위원 활동 등의 국어 보급 운동을 지속하였다. 다음은 한글학회(1986)을 기준으로 한 광복 이후 건재의 국어 보급 및 국어 교육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3) 건재의 국어 보급 및 국어 교육 관련 업적

- . 1945.8.25. ~ 1974.5.11. 한글학회 학술 이사
- . 1946.5. ~ 1959.9. 문교부 학술 용어 제정 위원 위촉
- . 1948.3.29. 한글 문화 보급회 부위원장
- . 1948.7.16. 문교부 교수 요목 제정 위원
- . 1949.7.5. 문교부 문법 용어 제정 위원회 위원
- . 1953.7.6. 문교부 국어 심의회 위원
- . 1955.10.3. 문교부 교수 자격 심사 위원회 위원
- . 1957.10.30. 문교부 국정 교과서 편찬 심의회 위원

- . 1957.11.5. ~ 1958.6.15. 한글학회 『중사전』 편찬 위원
- . 1959.10.9. ~ 1963.6.30. 『한글』(제125호 ~ 132호)의 ‘물음과 대답’란 집필
- . 1962.3.27.~1963.7.15. 문교부 한글 전용 특별 심의회 전문 위원(주간)
- . 1965.3.17. 문화공보부 방송 용어 심의 위원회 위원
- . 1966.3.15.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 1968. ~ 1986.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고전 국역 교열 위원
- . 1970.6. 문교부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위원
- . 1974.5.12. 한글학회 명예 이사
- . 1979.1.16. ~ 1980.8.28. 한글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위원
- . 1981.4.18. ~ 1986. 학술원 원로 회원 추대
- . 1985.8.10. ~ 1986. 한글학회 고문 추대

이처럼 건재의 국어에 대한 열정은 국어 정책이나 국어 교육 전반에 걸쳐 흔적이 남지 않은 곳이 없다.

건재는 국어 정책이나 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국어학 연구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말 소리의 차원에서는 먼저 “‘ㅣ’의 역행동화 문제”(『한글』제41호. 1937.)는 ㅣ모음 동화의 요인을 홀소리 자질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변화 현상을 유형화하여 어법을 정해야 함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건재는 ‘ㅣ’모음 역행동화를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4) ㅣ모음 역행동화 문제

- ㄱ. 제1부류: 중간에 다른 소리(물론 닿소리)가 끼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음절 홀소리와 아래 음절 ‘ㅣ’가 연발하는 경우: 동화의 정도가 가장 강하여, 심한 것은 아래 음절의 ‘ㅣ’가 탄 음절로서의 존재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음.
- ㄴ. 제2부류: 혀끝소리가 아닌 닿소리 곧 ‘ㄱ, ㅋ, ㅇ, ㅎ, ㄱ, ㅂ, ㅍ’들이 끼인 경우. 혀뿌리 및 목청소리가 끼여 있으므로 ‘ㅣ’역행동화를 방해하지 못하여, 동화의 정도가 매우 강함.
- ㄷ. 제3부류: 중간에 혀의 앞바닥 혹은 혀끝소리 곧 ‘ㅅ, ㅆ, ㅈ, ㅊ, ㄷ, ㅌ, ㄹ’이 끼인 경우. 이러한 닿소리들은 직접 혀의 작용으로 발하는 소리로 ‘ㅣ’와 자리가 가깝기 때문에 위 음절 홀소리로부터 아래 음절 ‘ㅣ’로 옮기는 도중에 닿소리가 먼저 나버리므로 동화의 여지가 적다.

이와 같이 세 부류의 동화 현상에서 세 번째의 부류는 역행동화를 부인하고, 일부 존재하는 것은 언어 습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제1부류와 제2부류의 역행동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남는다. 이에 대해 건재는 “첫째 실제의 어음으로 보아 그 동화 정도가 워낙 강하여 도저히 어법에 일치되는 발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은 부득이 현음을 좇되,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는 어법 조직을 돌아보는 정도로 그칠 것, 둘째 현실 언어의 조직 체계에 상치 혹은 불편한 점이 없는 한에서 현음(동화된) 그대로를 원칙으로 잡는 것, 셋째 그 밖에는 동화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심하여 아래 음절이 없어져 버린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 또는 언어 조직의 체계로 보아 그 어원들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조직 체계에 합치되는 편을 좇아 그 발음까지 정격 발음으로 읽고 말하도록 할 것” 등을 어법 정리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말소리 연구에서 또 하나의 업적은 “모음 상대 법칙과 자음 가세 법칙”(『한글』제60호, 1938)에 있다. 건재는 “말에는 반드시 뜻이 있는 동시에 또한 반드시 어떠한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의 맛(어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어조의 차이, 음가의 변환, 음절의 변환 증감, 단어의 환용, 수사의 변화, 동작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음가 변환은 조선어의 특징을 이루는데, 이 규칙이 모음 상대 법칙과 자음 가세 법칙이다. 모음 상대 법칙은 작은 어감을 주는 모음(저모음류)과 큰 어감을 주는 모음(고모음류), 넓은 어감을 주는 모음(전모음류)과 좁은 어감을 주는 모음(후모음류)의 대립이 이루어진다. 건재는 이 대립을 13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복합 상대법(넓은 모음 중 큰 모음과 작은 모음의 쌍이 다시 좁은 모음 중 큰 모음과 작은 모음의 쌍과 상대되는 것 : 팔팔-펼펼: 꿀꿀-꿀꿀 등)’, ‘겸합 상대법(복합 상대법의 어느 한 항목이 덜 발달된 경우)’, ‘교우 상대법(넓은 작은 모음 대 좁은 큰 모음, 좁은 작은 모음 대 넓은 큰 모음의 대립)’ 등의 ‘특수 모음 상대 법칙’을 더 설정하였다. 자음 가세 법칙은 예사 어감, 거센 어감, 된 어감의 대립으로 모두 7개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말소리 연구는 우리말의 어감 변화가 대립되는 자리에 음운을 바꾸어 주거나 특정한 음운을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짐을 규칙화한 것이다.

건재의 문법 연구는 『표준 중등 말본』(1949, 아문각, 후에 을유문화사에서 『표준 우리 말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간행), 『표준 중등 말본』(1956, 신구문화사), 『표준 고등 말본』(1956, 신구문화사), 『표준 문법』(1968, 계몽사), 『표준 중학 말본』(1977, 대동당) 등의 교과서와 ‘우리말 씨가름에 대하여’(『한글』제125호, 1959) 등의 업적이 있다. 권재일(1996)에서는 건재의 씨가름의 원리와 실재가 국어 문법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한 ‘폴이자리토씨’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건재의 씨가름은 낱말의 내용, 형태, 직능(기능)의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삼되, 그 경중의 차이를 두어 ‘직능 > 형태 > 내용’의 순서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재의 씨가름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권재일, 1996, 재인용)

(5) 건재의 씨가름

- 옳음 되는 씨 - 이름씨(명사), 움직씨(동사), 그림씨(형용사)
- 관계 맺는 씨 - 토씨(조사)
- 꾸밈하는 씨 - 매김씨(관형사), 어찌씨(부사)
- 따로 서는 씨 - 느낌씨(감탄사)

건재의 씨가름에서 ‘이다’를 폴이자리토씨로 설정한 것은 당시의 문법 연구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이다’는 체언에 붙어 서술 기능을 하는 점, 다른 토씨와는 달리 활용을 하는 점 등에서 독특한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재가 ‘이다’를 폴이자리토씨로 규정하기 전까지 상당수의 문법서에서는 ‘이다’의 성격 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시기 ‘이다’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이다’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

- 1. 최현배: 『중등 말본』(1948, 정음사)
 - 그것이 나의 책이다.
 - 이 집이 우리집이 아니다.

여기는 신계사이요, 저기는 만물초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알아주랴?

위의 보기에서 밑줄을 그은 낱말은 일과 문이 무엇이라고 잡[指定하]는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낱말을 잡음씨라 일컫는다. (잡음씨에 붙는 말은 ‘이다’, ‘아니다’뿐이다.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를 아울러서 풀이씨라 일컫는다.)

ㄴ. 이승녕: 『중등 국어 문법』(1962, 을유문화사)

[부록] ‘이다’ 이야기

[104] 여러 문법책은 ‘사람이다. 개다’의 ‘이다’를 지정사(指定詞)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옛날 문법을 연구하고 또 오늘날 문법을 연구하면 ‘이다’가 독립된 품사일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어를 연구하여 이 ‘이다’가 독립품사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다.

[105] 이것은 사람이다. 오는 것은 비다. 웃글(웃글)에서 보면 명사에서 ‘이다’는 어떠한 때에 붙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명사의 끝음절이 자음일 때에 ‘이다’가 붙는다. 그러면 ‘다’는 어떠한 때에 붙는가를 다시 보기로 하자. 명사의 끝음절이 모음일 때에 ‘다가’ 붙는다. (중략)

[106] 그러면 ‘이다’의 ‘다’는 ‘높-다, 크-다, 하-다, 먹-다’, 웃예(위의 예) ‘-다’이며, 명사에 한해서만 ‘이다, 다’가 붙는 것이고, 옛날 문법에서는 다시 ‘이다, |다, 다’의 세 가지로 나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다’의 ‘이’는 문법상 구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107] 그러나 후세에 표현법이 발달됨에 따라 점점 복잡한 어미가 다른 동사의 활용을 본떠서 붙게 되므로, ‘이다’가 복잡하게 발달하였다.

[108] 또 오늘날 글을 쓸 때에 ‘이다, 다’를 구별해 쓰기가 어려워 모두 ‘이다’로 쓰기 시작했다.

[109] 그러나 ‘이다, 다’가 품사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간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다. ‘이’는 절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이다.

[110] 그러므로 이것을 연구해 보고서 ‘격어미’라고 본다. 오직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을 본뜬 격어미라고 본다. (아직 우리나라 문법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학자가 각기 주장을 내세워 ‘지정사’라고 부르는 것을 여기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그간 소식을 말하여 둔다.)

ㄷ. 이희승: 『초급 국어문법』(1950, 박문출판사)

[271] 체언이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는 그 체언에 조사가 붙지 않고 종결어미가 붙는다.

우는 것이 꾀꼬리다. 푸른 것이 벼들이다. 나비는 저것이다. 꽃은 이것이요.

건재가 ‘이다’를 풀이자리토씨로 설정한 이유는, “다른 자리토씨(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름씨의 자리(격)를 정해주는데, 이 자리는 풀이말 자리로 다른 풀이말과 같은 형식적인 작용의 필요에 의해 끝바꿈(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도움 줄기가 붙을 수도 있고, 때때로도 할 수 있음”(정인승, 『표준 고등 말본』, 1956. 정음사)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재의 학설에 대해서는 권재일(1996: 25)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된 바 있다.

3. 사전 편찬과 한글 문답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취지서는 『한글학회 50년사』 1971: 263쪽 참고). 그런데 사전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건재가 조선어학회의 간사를 맡은 시점인 1936년 4월 1일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글학회 50년사』에 따르면 이 시기의 사전 편찬 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7) 1936년 이후 큰사전 편찬 현황

- ㄱ. 사전 편찬 자금 준비: 총액 1만원
- ㄴ. 편찬 완성 예정 기한: 만 3개년
- ㄷ. 사전의 내용 및 규모: 일반 대사전
- ㄹ. 주해의 용어 및 방식: 현대 표준어로 한글 전용
- ㅁ. 편찬 전임 집필 위원: 이극로, 이윤재(뒤에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휴직), 정인승(주무), 한징, 이중화(뒤에 권승욱, 권덕규, 정태진 증원)
- ㅂ. 학회 간부 및 사무원: 간사장 이극로(대표), 간사 최현배, 이윤재, 이희승, 정인승, 이만규, 이강래, 서기 이석린

건재는 이 사전 편찬 과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업무는 건재의 ‘사전 편찬에 관한 전반적 문제’(『한글』제4권 제7호, 1936.8.)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사전 편찬에 관한 전반적 문제

- ㄱ. 기초 공사 네 가지
 - 1. 어재(語材) 수집에 관한 문제: 일반 상용어, 전문 용어, 고어, 지방어, 외래어
 - 2. 표준어 사정에 관한 문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류 사회의 현재 상용어, 지방의 말을 조사하여 표준어를 보충, 신사물이 늘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새 술어나 외래어 채용의 문제
 - 3. 철자법 통일에 관한 문제: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원칙대로
 - 4. 어사(語辭)의 분류 문제: 품사의 분류, 복합어의 통칙 성립, 용언의 활용법 확정, 두미사 및 토의 유별 정돈
- ㄴ. 실무 공사의 세 가지
 - 1. 어의 주해에 관한 문제: 어사의 형태를 정확히 명시할 것, 어의의 설명을 정확하게 할 것
 - 2. 어사 배열에 관한 문제: 어원 주중(注重)의 배열법(첫 음절 같은 것끼리 한떼로 모아 벌림), 자형 주중의 배열법(자형의 같음을 따라 순차로 인접 배열함). 자음 본위의 배열법(24자모를 일정한 순서로 정하여 로마자 사전과 같이 배열함)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음
 - 3. 편찬의 체재에 관한 문제: 기재 방식(횡독식, 종독식), 자체와 부호, 목차와 범위, 인쇄 공사(판의 대소, 자양의 선명, 교열의 정확, 제본의 완미 등)

이와 같이 사전 편찬의 실무 과정에서는 국어 연구와 국어 정책의 모든 문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큰사전은 1929년 편찬을 시작하여 1957년 완간되기까지 무려 28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건재가 사전 편찬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시점이 1936년이었으므로, 큰사전이 나오기까지 건재가 사전 편찬에 관여한 세월은 20년에 해당한다. 사전 편찬 과정에서는 ‘표준말 사정’, ‘맞춤법 통일안 보충’, ‘전문어 처리’, ‘편찬 체제 결정’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나 식민 시기의 총독부의 발행 허가와 같은 문제도 뒤따랐다. 이를 극복하고 조건부 출판 허가를 받은 시점이 1940년 3월 13일이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1942년 가을까지 출판을 미루는 과정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져 식민 시기에는 출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큰사전 제1권이 출판된 것은 1947년 10월 9일이다. 1945년 9월 서울역 운송 창고부에서 발견된 큰사전 원고는 식민시대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므로, ‘부득이하게 환경에 영합하여, 또는 의식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피하여 해설이 불철저하게 된 것이 전편을 통하여 여간 많지 아니하며, 당연히 수록될 어휘로서 본의 아니게 빠뜨린 것도 많고, 말뜻이나 용례들을 조사할 겨를이 없어 보류한 것’(『한글학회 50년사』 274쪽)도 많았다. 따라서 사전 원고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편찬원 겸 간사장으로 이극로가, 편찬 주무 겸 간사로 정인승이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큰사전 6권이 모두 간행된 것은 1957년의 일이다. 1948년 12월 록펠러 재단의 원조로 큰사전 제2권 조판이 시작되었고, 1950년 6월 1일에는 제3권 제본, 제4권 조판이 완성된 상태였으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전 출판을 지연되었다. 그러나 피란 중에도 건재의 사전 편찬에 대한 열정은 끊임이 없었다. 1957년 1월 7일 편찬원 정인승, 권승욱, 유제한은 전라북도 전주에 임시 사무소를 차리고 제5권, 제6권의 원고 수정을 지속하여 5월 26일까지 대체적인 완성을 하였다. 그러나 1953년 4월 27일 발표된 ‘한글 간소화’를 강요하는 국무총리 훈령8호와 이로 인한 ‘한글 파동’으로 말미암아 1957년까지 출판을 지연된 셈이었다.

1957년 큰사전이 완간될 당시의 편찬원은 정인승(주무), 권승욱, 유제한, 이강로, 김민수(증원)였다. 당시 건재는 큰사전 완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9) 큰사전 편찬을 마치고

4262(1929)년 한글날 사회 각계의 공적(公的) 위촉을 받아 조직된 ‘조선어 사전 편찬 위원회’의 손으로 시작하고, 4269(1936)년 봄에 ‘한글학회’의 손으로 넘겨 받아 오늘에 이르는 무릇 28년 동안, 많은 파란 곡절과 남다른 비애 고민 속에서 오직 온 겨레의 동정과 격려에 힘입어 가까스로 한책씩 한책씩 달팽이걸음을 걸으면서 이제 겨우 끝 책임 여섯째 권을 마지막 뉘머리로써 우리말의 ‘큰사전’이라는 것이 영성한 건목으로나마 한 벌이 갖추 이루어진 오늘을 보게 되매, 과거 몇 번이고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어 본 우리의 가슴은 우선 천만다행하다는 듯 긴 한숨이 내쉬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전 편찬의 실무에 종사하여 온 한 사람인 나의 심경으로도 결코 단순한 ‘다행의 한숨’만이 곱다시 내쉬어지지 않는 아니다. 그보다도 더 깊이, 또 더 무겁게 나의 가슴을 지배하는 두 가지 느낌을 금할 수가 없으니,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의 못내 안타까운 심정이고,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극히 미안한 심정이다. 이는 첫째 나 자신의 역량이 본디 부족한 데다가, 우리 학회의 오늘까지의 환경과 사정이 연속적인 악조건들에 부닥치고 휘둘리어, 한 번도 총체적인 원고를 총체적으로 놓고서 퇴고(推敲) 정리를 해볼 겨를이 없이 조각조각의 부분적으로 기회기회의 닥치는 대로 주워모아 가면서 박아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으며, 한편 한편 박아 낸 뒤마다 잘못된 데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되어, 그런 것을 일일이 박기 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이 몹시 스스로 안타깝고, 따라서 그렇게 불완전한 것을 그대로

사회에 내놓게 됨이 한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바이다.(이하 생략)

- 정인승(1957), 큰사전 편찬을 마치고, 『한글』제122호.

이 글은 큰사전 편찬을 끝낸 뒤 건재가 그동안 사전 편찬 과정을 회고하며 쓴 글이다. 이 글은 그가 사전 편찬 작업을 ‘사회가 부여한 책임’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생을 바친다는 각오로 일을 해 온 분이였음을 드러내는 글이다. 당시 사전 편찬에 관여했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재의 경우는 개인적인 저술이나 직책보다는 사회가 부여한 책임을 유독 강하게 느낀 분으로 평가된다. 그렇기에 그는 당시의 위대한 국어학자이자 국어 정책가, 국어 교육가였음에도 개인적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공적인 일을 감내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건재의 사전 편찬에 대한 열정은 ‘중사전’ 편찬에도 이어진다.

조선어학회(한글학회)와 건재 정인승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기관지 『한글』의 편집과 발행을 맡아보면서 집필했던 ‘물음과 대답’이다. 건재의 한글 문답은 고상고보 교원 시절 『한글』에 질문 편지를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당시에는 건재가 질문자였고, 김윤경을 비롯한 『한글』 편집자들이 답변자였다. 건재가 질문자에서 답변자로 입장이 바뀐 것은 1937년 9월 『한글』의 편집과 발행을 맡아보면서부터이다. 당시 『한글』의 ‘물음과 대답’ 란은 독자가 한글 사용 과정에서 겪는 의문을 학회에 질문하고 학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란이었다.

건재는 1937년 9월(제5권 8호)부터 1942년 4월까지(제10권 제2호)까지 ‘물음과 대답’ 란의 답을 집필하였다. 이 질문과 답변은 뒤에 『한글문답』(1950, 현대문학사, 전집 제4권 참고)으로 나타난다. 이 책은 그동안의 ‘물음과 대답’에 실었던 것들을 ‘1. 글자에 관한 것, 2. 소리에 관한 것, 3. 표준말에 관한 것, 4. 맞춤법에 관한 것, 5. 말본에 관한 것, 6. 말뜻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본래 발표했던 연대순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내면서 건재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10) 『한글문답』‘머리말’

지난 열 네 해 동안 ‘한글’지를 통하여 독자 여러분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물음에 대하여 그때그때에 다라 대답하여 드린 것을 몇몇 벗들이 일부러 주워 모아 가지고 이를 단행본으로 내기를 여러 번 요청한 바 있었으되, 그리함이 나의 본뜻이 아니므로 굳이 거절하고 말았더니, 생각지 아니한 최근 얼마 전에 그 분들이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이미 인쇄의 준비를 대략 갖추어 놓았노라고 양해를 강청하는지라, 일이 더 말리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승낙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용이 변변하지 못하고, 더구나 오랜 동안에 여러 각 사람으로부터 여러 각가지 문제로 물음을 받은, 이른바 일문 일답의 것이어서, 아무 순서도 없고 체계도 없으며, 같은 문답이 여러 번 거듭된 것도 있고 또는 시대의 다름에 따라 같은 물음에 대답이 달라진 것도 있으며, 그때에 필요한 대답이 지금은 불필요하게 된 것도 있고 하여, 그냥 그대로 둘 수 없겠으므로 전부 손을 다시 보지 아니하면 안 되겠으나 도저히 그리할 겨를이 없어 우선 대강 몇 군데 손보는 체하여 그대로 내게 되니, 보시는 분들에 대하여 실로 부끄럽고 미안하기 짝이 없다. (이하 생략)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재의 국어 의식은 ‘체계성’,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반 독자의 ‘물음’에 따라 그때그때 답변한 것이므로,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우나, 물음의 내용이 일상의 국어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들이라는 점, 그리고 답변의 횟수가 많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 속의 국어 문제와 관련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의문·해설 한글강화』(1960, 신구문화사)는 『한글문답』을 개정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재료의 배열 순서를 연대순에서 ‘찾아보기의 편의를 위해 질의의 내용을 따라 유취 분류한 점’이 특징이며, ㄱㄴㄷ의 순서로 하였다. 또한, 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글의 역사’, ‘한자어와 외래어’를 추가하였으며, ‘맞춤법의 문제’에서는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붙임’을 두었다.

이처럼 생활 속의 국어사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했던 점은 건재의 학문이 이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용적, 사회 봉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설에 따르면 ‘한글문답’은 건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 개인이 20년 이상 그 일을 맡아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글문답’이 건재의 선비적이고 지사적인 면모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건재의 국어 교육

건재의 업적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는 분야가 국어 교육 관련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건재는 국어 교육에서도 일석 이희승, 외솔 최현배, 심약 이승녕, 한걸 김윤경 등과 함께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분이다. 그러나 건재의 국어교육에 대해서 선행 연구자들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건재의 국어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할 수 있다. 먼저 국어 회복과 국어 보급(맞춤법과 표준어 보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글독본』(1948, 정음사) 편찬이다. 건재는 독본 편찬 이전부터 국어 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바 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5일 조선어학회 긴급 총회에서는 “교과서가 없어 공부 못하는 초·중등학교의 시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계·문필계·언론계 등 여러 방면의 협력을 얻어 우선 임시 국어 교재를 엮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9월에 학회 내에 ‘국어 교과서 편찬 위원회’를 두었다. 이때 건재도 교과서 편찬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 편찬 위원회의 활동 결과 『한글 첫 걸음』(1945.11. 군정청 학무국), 『초등 국어 교본』(상권: 1945.11. 중권: 1946.1. 하권: 1946.1. 군정청 학무국), 『중등 국어 교본』(상권 1946.1. 중권: 1946.1. 하권: 1946.1.)이 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재는 국어 회복과 국어 보급을 목적으로 한 『한글독본』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중등 정도의 각 학교 학생들에게 언어를 세련시키며 글을 읽는 힘과, 글을 쓰는 힘과, 또한 글을 짓는 힘을 수련시키기 위하여, 국어과 보습 독본으로 사용하도록 편찬’한 것이다. 책의 ‘일러두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한글독본』 ‘일러두기’

1. 이 책은 주로 中等 程度의 各 學校에서 學生들에게 言語를 洗鍊시키며, 글을 읽는 힘과,

글을 쓰는 힘과, 또한 글을 짓는 힘을 修練시키기 爲하여, 國語科 補習 讀本으로 使用하도록 編纂한것입니다.

2. 材料는 될수있는데로 多方面의 作品中에서 뽑되, 文章은 아무쪼록 平易할것으로, 內容은 아무쪼록 敎訓的인 同時에 趣味 있는것으로 고르기에 힘썼습니다.
3. 標準語와 綴字法에 特別히 嚴正 精確을 期하기 爲하여, 一語 一字마다 細心 注意를 加하여, 原文의 말과 글짜를 徹底히 整理하고, 文章 內容도 現代的 見地에서 敢히 더러 깎고, 보태고, 고치기도 하였으니, 이는 作家 여러분에게 크게 미안한바이나, 스스로 그분들의 善意的 寬恕를 믿기때문입니다.
4. 군데군데 글짜 위에 점을 찍어 표현것은 編者의 多年 經驗에 비추어, 標準語나 綴字法의 不注意로 因하여 틀리게 쓰는이가 많은것을 짐짓 指摘한것이니, 學生들로하여금 읽을 때마다 거기에 特別히 意識을 加하여, 스스로 標準語를 考査하고 綴字를 檢討하여, 그와 틀리는 말이나 혹은 틀리는 綴字로 쓰지 아니할 自信을 가지도록 練習시켜나가면, 確實히 많은 效果를 얻을줄로 믿습니다.
5. 標準語에서 規則的으로 決定할 수 있는 말들과, 綴字法에서 새 받침으로 써야할 말들과, 및 文章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重要的 符號들을 卷末에 붙이었으니, 이들을 充分히 記憶하여 實用에 熟練하도록 할것이며, 띄어 쓰는 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規程을 基礎로 하여, 이 책에 쓰인 마디마디에 잘 留意하여, 各自熟達하게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일러두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재의 독본 편찬은 ‘표준어와 맞춤법 보급’, ‘교훈적인 내용’, ‘현대에 맞는 구성’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모두 20과로 이루어진 교재(教材) 가운데 ‘이순신 어른’, ‘조선 학생의 정신(도산)’, ‘애국가’, ‘한글노래(고루)’, ‘조선 청년의 응단력과 인내력(도산)’ 등은 애국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편찬한 재료이며, ‘어린 용사(소파)’, ‘나귀의 피(이소프)’, ‘재미있는 이야기’, ‘우스운 참새들’ 등은 학습자의 정서나 흥미를 고려한 재료이다.

다음으로 중등학교용 국어, 문법, 글본(작문) 교과서 편찬 업적이다. 이 가운데 문법 교과서 편찬은 건재의 국어 연구의 차원에서 조명된 바 있으나, 국어와 글본 교과서 편찬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기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검정 교과서 편찬은 임시적인 성격을 띤 조선어학회의 ‘교본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점에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선어학회의 교본류는 일제강점기 제4차 교육령기의 ‘조선어과 교과서’(조선총독부 편찬의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중등교육 조선어독본』)와 비교했을 때, 상당수의 내용이 중복된다. (초등 교본은 70%, 중등 교본은 40% 정도가 중복됨.) 이처럼 교본이 총독부 교과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까닭은 시간에 쫓기면서 임시로 교과서를 편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어학회 교과서 편찬 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이극로, 김병제, 조운제, 이희승, 정인승 등)는 개인적으로 검정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건재 정인승이 편찬한 중등학교 교과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2) 정인승의 중등학교 교과서 편찬

1. 이극로·정인승 엮음(1948), 『국어』1.(남자 중학 제일학년 씀), 『중등국어』2.(남자, 제2학년 씀), 정음사(현재 보성고 오영식 교사의 소장본이 존재함): 책의 속지에 ‘초급중학교 남자 국어부독본’이라는 용도가 쓰여 있다. 당시 중등학교는 6년제(초급 3년, 고급 3년)였

으므로, 초급용 3권이 더 발행되었을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모두 2권이다. 1권은 15과, 2권은 16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마다 본문 다음에 익힘문제를 두었다.

- ㄴ. 정인승 엮음(1949), 『국어』1,2,3.(같은 해 문교부 인정), 정음사(현재 보성고 오영식 교사 소장본): 학년 당 한 권씩 국어 부독본으로 편찬되었으며, 1권 19과, 2권 25과, 3권 17과로 구성되었다. 앞의 이극노·정인승(1948)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 ㄷ. 이병기·정인승 엮음(1955), 『표준 옛글』, 신구문화사: 남녀 고등 사범 실업고등 국어과 1,2,3학년용으로 개발된 교재로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국어과 ‘고전(古典)’ 교과서이다. ‘아름다운 마음’, ‘자연의 세계’, ‘자연과 생활’, ‘풍자 문학의 옛 모습’, ‘세상살이의 이모저모’, ‘여류 문학의 그윽한 향기’, ‘한글 문화의 처음 모습’, ‘타고 남은 옛 구슬들’의 8단원 체제에 44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 ㄹ. 이병기·정인승·백철(1956), 『표준 고등 글본』, 신구문화사: 고등, 사범, 실업고등용 작문 교과서로 ‘문장의 이모저모’, ‘자연과 인생을 노래할 시’(시 짓는 법), ‘흥미 있는 이야기’(장편 소설 작법), ‘붓 가는 대로’(수필 쓰는 법), ‘산으로 바다로’(기행문 쓰는 법), ‘심정을 적음’(일기와 편지), ‘단편을 그림’(단편 소설 짓는 요령), ‘이론의 전개’(평론 쓰는 법)의 8단원 체제에 ‘편집하는 법’을 ‘붙임’으로 두었다.

이처럼 건재 정인승은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학교 문법의 통일 과정에서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의 내용 체계, 고전과 작문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이와 함께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집필한 교재가 더 있는데, 그 가운데 ‘용비어천가 강술’이나 ‘조선 문자사’ 등에 대해서는 조오현(1996)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 구현정(1997), 정인승 선생의 학문, 『한말연구』3, 221 ~ 244. 한말연구학회.
- 권재일(1996), 정인승 선생의 품사론과 문장론 연구,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원.
- 김계곤(1996), 건재 선생의 조어론,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원.
- 김승곤(1996), 건재 정인승 선생의 생애와 학문,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원.
- 리의도(1997), 건재 선생님의 ‘한글 강화’에 대하여, 『한말연구』3, 245 ~ 272. 한말연구학회.
- 이강로(1996), 건재 선생이 사전 편찬에 남긴 이야기,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원.
- 이극노·정인승 엮음(1948), 『국어 1, 남자 중학』, 정음사.
- 이극노·정인승(1948), 『중등국어』2 남자, 정음사.
- 이병기·정인승(1962), 『표준 옛글』, 신구문화사.
- 이병기·정인승·백철(1966), 『표준 고등글본』, 신구문화사.
- 이승녕(1962), 『중등 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용호(1973),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 이의도(1996), 건재 선생의 ‘의문 해설 한글 강화’,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원.
- 이희승(1950), 『초급국어문법』, 박문출판사.

정손모(1996), 나의 아버지 건재 정인승,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원.
 정인승 엮음(1949), 『국어』1,2,3. 정음사.
 정인승(1948), 『한글독본』, 정음사.
 정인승(1953), 『표준 우리 말본』, 을유문화사.
 정인승(1956), 『표준 고등 말본-남녀 고등 국어과 1,2,3용』, 신구문화사.
 정인승(1956), 『표준 고등 말본-남녀 고등, 사범, 실업고등 국어과 1,2,3용』, 신구문화사.
 정인승(1956), 『표준 중등 말본 교사용 지도서』, 신구문화사.
 정인승(1956), 『표준 중등 말본-남녀 중학교 국어과 1,2,3용』, 신구문화사.
 정인승(1957), 큰사전 편찬을 마치고, 『한글』제122호.
 정인승(1977), 『표준 중학 말본』, 대동당.
 정인승·권승욱·이강로·유제한·김민수(1957), 큰사전 편찬을 마치고, 『한글』제122호, 한글학회.
 조오현(1996), 나의 스승 건재 정인승 박사님,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원.
 조오현(1996), 정인승의 ‘용비어천가 강의’ 해제, 『한말연구』, 285 ~ 286. 한말연구학회.
 조오현(1997), 건재 정인승 선생의 생애와 사상, 『한말연구』3, 293 ~ 308. 한말연구학회.
 조오현(1998), 건재 정인승 선생의 편지글, 『한말연구』4, 461 ~ 466. 한말연구학회.
 최용기(1997), 건재 선생님의 국어 사랑 정신, 『한말연구』3, 273 ~ 291. 한말연구학회.
 최현배(1948), 『중등 말본』, 정음사.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한글학회(1986), 건재 정인승 선생 해적이, 『한글』제191호, 7~ 14. 한글학회.
 한말연구학회(1997), 『건재 정인승 전집』1~7. 박이정.
 허재영(2009), 국어사전 편찬 연구사, 『한국사전학』제13호, 286 ~ 312. 한국사전학회.
 허재영(2009), 『일제강점기 교과서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문화사.

<2009년 11월 6일 허재영>